

유령의 귀환과 비통한 마음의 서사

김 은 하 *

1. 기억의 정치에서 사회적 애도로
2. 비통한 죽음과 증언의 형식: 한강, 『소년이 온다』
3. 모욕의 인간학과 '고귀한' 죄책감: 권여선, 『레가토』
4. 슬픔의 금지를 넘어

1. 기억의 정치에서 사회적 애도로

한 정신과 의사는 어린 아들을 병으로 잊은 뒤,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각도에서 겸토하고 나서 그저 무거운 짐처럼 들고 다니는 것, 어쩌면 영원한 상실이란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라고¹⁾ 쓴 바 있다. 비통함이 잔뜩 물어나는 이 문장은 남겨진 자는 슬픔 속에 갇힌 채 다양한 상황, 분위기, 장소, 맥락 속에서 사랑하는 이에 대한 기억에 사로잡힘으로써 그/그녀의 부재로 인한 고통을 반복해 겪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발견은 애도를 상실의 슬픔을 점차로 견디게 해주는 승화의 과정으로 여겨온 문화적 관습을 무력화하는 듯하다. 살아남은 자들이 망자를 기억의 영역에 안치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에 애도는 슬픔의 극복을 돋는 감정의 의례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애도의 불가능성’이 애도의 충실성을 보장한다는 대리언 리더(우털임 역), 2011 『우리는 왜 우울할까: 멜랑콜리로 읽는 우울증 심리학』, 동녘, 38면.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1) 대리언 리더(우털임 역), 2011 『우리는 왜 우울할까: 멜랑콜리로 읽는 우울증 심리학』, 동녘, 38면.

리에 빠지지만, 치유할 수 없는 슬픔은 애도를 축발하는 것이다.

애도의 충실성은 자연사가 아닌 모종의 억압적인 힘에 의해 희생된 죽음과 그 애도를 통해 잘 증명되는 듯 보인다. 희생적 죽음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쉬이 잊혀질 수 없는 ‘원한’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그것은 ‘애도’를 개인의 슬픔이 아닌 사회 집단의 의무, 즉 상실로 상처받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공동체가 짊어져야 할 과제로 만든다. 사건을 직접 겪은 당사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트라우마를 가함으로써, 슬픔을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치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고통에 대한 공감과 그로 인한 연대는 고립된 개인을 넘어 ‘우리’를 구성하기 위한 정치적 실험의 관건이 될 수 있다. 이는 슬픔이 호르몬 요법을 요하는 생리학적 문제로 축소되거나 개인에게 떠맡겨진 우리 시대에 애도가 공동체 구성의 희귀한 자원임을 암시한다.

한국의 현대사는 애도가 단지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를 획득해왔음을 증명한다. 숱한 의문의 죽음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죽음의 원인을 은폐하고 시신을 빼앗음으로써 망자에 대한 가족과 벗들의 애도할 권리를 빼앗고 가해의 죄를 부정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애도는 가해자를 심판의 법정에 세워 역사를 바로 세우는 한편으로,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켜 그 몸을 편히 누이는 수순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때 오월의 희생자에 대한 애도는 짧은 시간 안에 잘 이루어진 듯 보인다. 1995년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가해자들이 국가내란과 살인죄로 기소되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국가폭력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상이 곧 치유일 수 있을까? 성공한 혁명이라고 할지라도 희생자의 영혼과 육체를 파괴한 사건은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애도 문제에서 희생과 보상이라는 교환의 등식은 성립되기 어렵다. “성공한 항쟁은 반복하여 기념될 뿐이지 ‘거슬러’ 기억되지 는 않”는다는²⁾ 문부식의 지적대로 역사의 성역에 안치된 죽음은 오히려 망각의 위험 속에 놓이기 쉽다.

애도는 희생자의 억울한 죽음을 초래한 억압적인 정치적 현실을 바로잡는 정

2) 문부식, 2002 「‘광주’ 20년 후-역사의 기억과 인간의 기억: 끼엔, 나디야, 그리고 윤상원을 위하여」 『기억과 역사의 투쟁』(당대비평 특별호), 삼인, 273면.

치적 과제일 뿐 아니라 ‘응답가능성으로서의 책임’,³⁾ 즉 타자로부터 요청 또는 호소하는 목소리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애도는 인간은 응답할 수 있는 존재이며, 응답가능성으로서 책임의 내부에 있는 존재임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이 때 책임이란 자기만의 고립된 세계, 침묵의 세계를 벗어나 타자와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애도는 희생자를 기념비화함으로써 엑소시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지평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삶의 방식을 바꾸도록 요구한다. 그러므로 애도는 정치의 수단이 아니라, 윤리의 지평 속에 놓이게 된다. 타자의 고통과 상처를 깊이 공감하고 배려하는 심성의 형성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애도는 단지 정치적 투쟁의 계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985년은 광주민주화항쟁에 관한 다큐멘터리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가 출판되었다는 점에서 뜻 깊은 해이다. 항쟁참여자의 증언과 여러 문건들을 토대로 5월의 봄날에 이루어졌던 믿을 수 없던 사건을 재구성함으로써 기억의 쇠퇴와 휘발에 맞서 ‘사건’을 기억하고 희생자를 애도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전남사회운동협의회’의 대표 전계량은 책의 서문에서 중대한 의미를 마친 자의 감격과 회한인 양 불귀의 객이 되어버린 아들 영진의 이름을 비통하게 부른다. 그러나 그는 이내 민주화에 대한 갈망의 표현인 양 아들과 희생자들을 “민주, 민중, 민족의 사나이들”로 호명하고, “그대들의 불퇴전의 헌신과 죽음에의 결단 앞에 그대들의 이 작은 족적을 이 민족 뜨거운 양심의 이름으로 현화한다.”고⁴⁾ 쓴다. 공동집필자인 황석영 역시 신화나 기념비로 만들지 말자는 다짐에도 불구하고 희생자의 죽음을 “민족운동의 지평” 속에서 위치짓는다. “민주, 민중, 민족의 사나이들”, “민족의 뜨거운 양심” 등은 5월 광주를 폭동으로 명명함으로써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 한 국가에 맞선 대항 기억의 언어이다.

그간 한국의 지식학계에서 과거 청산문제는 주로 기억투쟁, 기억의 정치학 등의 담론을 통해 논의되어왔다. 역사가 국가권력이 위로부터 만든 공식기억과 민중이 아래로부터 만든 대항기억이 서로 충돌하고 타협하며 다시 쓰는 기록으로

3) 서경식 · 타카하시 테츠야(김경윤 역), 2002 『단절의 세기 증언의 시대』, 삼인, 115면.

4) 전남사회운동협의회 편 · 황석영 기록, 1985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광주 5월 민중항쟁의 기록』, 풀빛. ‘발간사’와 ‘서문’을 참조할 것.

여겨지게 되고, 기억투쟁이 일정한 성과를 냈으로써 사회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왜곡된 기억을 바로잡으면 사회적 애도가 축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애도가 불가능해지는 역설적 현상은 왜 발생하는가? 아래로부터의 투쟁이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기구의 공식 기억으로 전유되는 한편으로 희생자가 성전의 기억 속에 안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보상과 인정은 애도의 필수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또한 희생자의 의지 혹은 용기 등 추상화된 정신을 강조하게 되면 폭력 앞에 선 인간의 두려움이나 갈등 그리고 신체의 기억 등을 외면해버림으로써 희생자가 겪은 사건의 리얼리티와 접촉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희생자는 기념의 대상이 되고 애도는 불가능해지는 역설적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고바야시 히데오는 기계론적 인과론에 집착하는 근대의 역사관이 역사에서 문학을 무리하게 떼어냄으로써 역사가 실종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비판하며, 역사는 “인류의 거대한 원한”으로서, 그것을 떠받쳐 온 것은 “우리들의 애석한 마음이지, 결코 인과의 사슬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마치 “엄마에게 역사적 사실이란, 아이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원인으로 어떤 조건 하에서 일어났는가 하는, 단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다는 감정이 동반되지 않으면, 역사 사실로서의 의미가 생기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다. 그는 “좋은 문학이 반드시 좋은 역사라고는 할 수 없으나, 좋은 역사는 반드시 좋은 문학”이라는 주장을 통해 “스스로 짊어져, 온몸에 가해지는 중량감이 느껴지는 역사의 무게”를 이야기한다. 법칙으로 전달 불가능한 인간의 상처와 고통을 배려하고 공감하지 않는다면 역사는 허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⁵⁾

‘애도’는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공정성과 정의라는 도덕철학의 빙곤을⁶⁾ 벗어나

5) 고바야시 히데오(유은경 역), 2003 『고바야시 히데오 평론집: 문학이란 무엇인가』, 소화, 178-214면.

6) 이해정에 의하면, 전통적 도덕철학은 보편성, 추상성 그리고 공평성을 지향하는 속성이 있는데, 이러한 속성들로만 이루어진 도덕은 도덕적 경험의 특수성과 편파성을 도덕 영역 밖으로 내몰고 경시하게 된다. 서구 도덕 철학의 밑그림이라 할 수 있는 스미스와 롤스로 이어지는 공리주의, 흡스, 로크, 칸트, 롤즈로 이어지는 계약론적 전통은 도덕을 극도로 추

따뜻하고 애정 있고 동시에 책임감 있는 도덕과 도덕 행위자를 낳을 수 있는 윤리학의 재구성을 위한 핵심 의제이다.⁷⁾ 슬픔은 들어주는 이가 있을 때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은 애도의 독특한 측면 중의 하나이다. 상실의 고통은 사건을 어느 누구와도 나눌 수 없을 때 더욱 커진다. 따라서 타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타자가 겪은 사건을 전해 듣는다는 것은 이야기되는 언어의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침묵, 신음, 몸부림이 이야기하는 전체를 받아들이기를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적 경청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애도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애도는 타자와 내가 독립된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새삼 확인시키며 서로를 관계지향적으로 연결한다. 그러나 슬픔이 사적인 것으로 취급되는 사회일수록 애도는 개인에게 떠맡겨지기 때문에 점점 더 극복하기 어려운 일이 되고 만다. 더욱이 슬픔은 사건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슬픔의 공유를 요구하기 때문에, 혹은 재난이 언제 어디서든 나/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으로 인해 기피되기 쉽다. 이는 폭력과 상처에 대한 민감한 이해와 배려가 동반될 때 사회적 애도 문화가 형성될 수 있음을 암시 한다.

한강의 『소년이 온다』(2014, 창비)와 권여선의 『례가토』(2012, 창비)는 현대사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인 광주항쟁을 배경으로 상처와 모욕의 지난 연대를 소환해 애도 의례를 펼친다. 특히 희생을 명예로운 것으로 언표화하는 대신에 희생자가 겪은 모욕과 그로 인한 슬픔을 서사화한다. 모멸의 기억은 마치 책상에서 서랍을 빼내듯 몸과 정신이 간단히 분리되지 않음을 증명한다. 최근 한국문학에서 역사의 희생자, 즉 유령이 다시 소환되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 시대의 위기를 알리는 징후이다. 2009년의 용산이나 2014년의 세월호 같은 재난이 아니더라도

상화와 보편화함으로써 오히려 도덕의 빈곤을 유도했다. 캐롤 길리건은 도덕영역을 재구성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어머니 역할에서 발견되는 보살핌의 윤리(the ethic of care)를 제시한다. 그녀에 의하면 보살핌이란 특수한 타자에게 특별한 도덕적 관심을 보이고, 그의 상황에 공감하고 그와 나를 동일시하는 것이다. 나아가 인간들이 관계의 네트워크 속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면서, 타인의 필요를 수용하고 응답하는 행위인데, 이 관계의 전형적인 형태가 어머니와 어린 아이의 관계이다(이혜정, 2007 「도덕 영역을 재구성하기 위한 모성적 윤리 연구」 『한국여성철학』 제8권, 92-112면).

7) 위의 논문, 101-102면.

지금 개개인은 일종의 비상체제 하에서 ‘벌거벗은 생명’으로 내던져져 있으며, 살아남는다는 것은 수치를 무릅쓰는 일이 되었다. 『소년이 온다』가 ‘용산도 광주다’라는 식의 발견에 도달하거나 『레가토』가 광주를 배경으로 처리하는 과감한 생략과 개인의 원한을 강조하는 방식을 통해 상처와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촉발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 때문이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적 상상력의 실패가 폭력을 끌어들인다고 말하는 듯 애도 서사는 새롭게 쓰여지고 있다.

2. 비통한 죽음과 증언의 형식: 한강, 『소년이 온다』

80년 광주는 비민주적으로 권력을 탈취한 국가가 저항적 시민을 향해 저지른 잔혹하고도 조직적인 학살이라는 점에서 인간의 상상력을 압도하는 사건이다. 이는 아마도 ‘광주’가 현대사를 관통하는 충격임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재현되지 못한 이유일 것이다. 한강의 『소년이 온다』는 재현의 결핍을 뛰어넘듯 열흘간의 광주에 대한 세밀한 고증을 바탕으로 국가폭력의 부당성을 폭로하는 한편으로 희생자가 겪은 모멸적인 사건을 사건의 밖에 있는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미적 실험을 시도한다.⁸⁾ 삼십여 년도 더 지난 시간의 저편에서 광주의 유령을 불러내고 그 죽음과 슬픔을 추체험하게 함으로써 소설을 진흔을 위한 제의 공간으로 만든다. 특히 희생자가 겪은 인간적인 상처에 대한 탐구는 인간의 취약함에 대한 숙연한 인정을 유도함으로써 이념, 정치, 역사 주체 등의 언어로 수렴되지 않는다. 개개인의 비통이 곧 역사임을 떠올리게 만드는 대목이다.

6개의 장과 에필로그는⁹⁾ 특정 인물에게 시점을 고정하고 있지 않다. 다각적인 시점이 사용되는 한편으로 ‘장’마다 중심인물을 달리해 고백과 증언이 이루어짐으로써 간접화된 방식이나마 죽은 자와 산 자가 서로의 슬픔과 죄책감을 이야기

8) 김은하, 2014 「부서진 자의 존엄과 영혼의 증거: 한강의 『소년이 온다』」(‘수원평생학습아카이브 와’ 2014.8.6, <http://www.suwonedu.org/suwon/issue/59347>).

9) 여섯 개의 장과 하나의 에필로그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1장(어린 새), 2장(검은 숲), 3장(일곱개의 뺨), 4장(쇠와 피), 5장(밤의 눈동자), 6장(꽃핀 쪽으로), 에필로그(눈 덮인 뱀프).

하는 소통의 구조가 형성된다. ‘너’라는 이인칭 시점으로 소년 동호와 그의 친구 정대가 총에 맞아 몸없는 혼령이 되는 과정을 담은 1, 2장은 과격적이다. 기억의 영역에 안치될 수 없다는 듯 소년들은 부란 중인 시체로, 몸마저 빠지고 떠도는 유령으로 산 자의 시간 속으로 회귀해오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인칭 시점은 동호가 체험한 사건을 사건의 외부에 있는 이들이 나누어갖기 위한 형식이다. 다른 한편으로 소년, 즉 광주의 희생자들은 살아남은 자들의 마음속에 출몰하는 유령이다. 에필로그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 서술자-작가는 어린 시절 우연히 동호의 죽음을 알게 된 후 자신의 영혼도 외상을 입었다고 고백한다. 희생자를 애도하지 못한 것은 비단 도청 투쟁을 함께했던 생존자만이 아닐 것이다. 이는 타자의 훼손이 나의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암시함으로써 사건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연결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런데 동호를 비롯한 시민군들은 왜 죽음이 닥쳐오는데도 도청에 끝까지 남아있었던 것일까? 소년은 이미 망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수 없으므로 의문은 더욱 증폭된다. 동호와 도청 투쟁을 함께 했던 여고생 은숙, 대학생 진수, 미싱사 선주가 겪은 항쟁과 그 이후를 그린 3, 4, 5장은 소년이 겪은 사건에 다가가기 위한 서사 전략으로 보인다. 광주의 생존자이면서 항쟁 후 폭력에 노출된 이들의 삶은 희생의 의미를 증언해준다. ‘신성화’가 희생자의 죽음에 대한 보상이 되지 못하기에 애도는 한없는 슬픔이자 비통이다. 그러나 도덕감정이라는 인간의 희귀한 자질마저 놓쳐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 하듯 작가는 폭력의 잔혹함을 고발하는 한편으로 그것을 통해 환기되는 인간 정신의 소중한 본질을 포착하려 한다.

작가는 상상만으로도 애잔하기만 한 소년 동호를 되살려내고, 그와 도청 투쟁을 함께했던 이들을 중심으로 삼십여 년에 이르는 긴 시간을 담아낸다. 살아남은 자들은 동호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못한 죄책감에 짓눌리는 한편으로 항쟁 후 겪은 고문으로 고통 받는다. 은숙, 진수, 선주의 이야기는 각각 연대를 달리하지만, 개별적 시간의 차이는 무의미하게 여겨진다. 트라우마의 시간은 진보를 뜻하는 직선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되돌아오는 나선이며, 사건의 얼굴은 동질적이다. 트라우마는 자발적 기억이 아니라 의지와 무관하게 회귀해오는 폭력이기 때문이다.

다. 그것은 불시에 사로잡아 점령의 폭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나’를 철저히 무력하게 만든다. 인간 생존의 가장 근원적인 추진력인 나르씨시즘을 훼손하고 세계에 대한 신뢰감을 박탈함으로써 시간이 지나도 뭉개지거나 흐릿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재진행형의 시간이다. 이렇듯 작가는 트라우마적 시간의 재현을 통해 희생자가 겪는 고통을 추체험하게 만든다.

오카 마리는 ‘사건’의 기억은 타자와 나누어가짐으로써만 애도될 수 있는데, 이는 단지 ‘사건’이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청자와의 공감이 형성되어야 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인간의 인식 지평을 넘어서는 사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그것을 겪지 않은 사람들에게 공감 혹은 전이될 때 비로소 애도는 개인의 슬픔이 아니라 공동의 과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¹⁰⁾ 베틀러는 슬픔이 복잡한 수준의 정치공동체의 느낌을 제공하고, 슬픔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근본적인 의존성과 윤리적 책임감을 이론화하는 데 중요한 관계적 끈을 강조함으로써 그렇게 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를 잘 확인시켜주는 것이 상실이라는 외상적 경험이다. 우리는 저마다 자신을 단독자로 가정하지만, 사랑하는 이의 상실이라는 사건이 나의 상실이 되는 미스테리한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우리가 잊어버린 그 대상에게 상당히 기대고 있었을 뿐 아니라 ‘너’가 곧 ‘나’이었음이 뒤늦게 확인되기 때문이다.¹¹⁾ 그러므로 애도는 이러한 관계성, 즉 나의 타자에 대한 책임을 깨닫고, 그것을 다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건의 공유는 단지 사건이 그 외부에 있는 이에게 실감 있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카 마리는 오히려 사실주의는 사건을 완전하게 재현할 수 있다는 자만심으로 인해 타자를 지워버린다고 비판한다. 사건의 전달 불가능성은 트라우마의 냉혹성 속성에서 비롯된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자는 폭력적인 사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바로 그 장소에서 자신이 신체와 마음으로 느꼈던 모든 감정을 다시 한 번 겪게 된다. 육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건의 시간을 사는 은수는 도청에 전화를 걸어 분수를 꺼달라고 항

10) 오카 마리(김병구 역), 2004 『기억. 서사』, 소명출판, 39면.

11) 주디스 베틀러(양효실 역), 2008 『불확실한 삶: 애도와 폭력의 권력들』, 경성대학교 출판부, 49-50면.

의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명랑한 처녀가 되지 못한 채 자신이 편집한 회곡집의 문장처럼 눈도 귀도 사원(寺院)이 되어버린 상주의 삶을 산다. 그녀는 보안사에 끌려가 뺨 일곱 대를 맞은 뒤 매일매일 한 개의 뺨을 잊자고 마음먹지만 “일곱 번째 뺨을 잊을 날은 오지 않을 것”을 예감한다. 다른 한편으로 도청의 마지막 투쟁에 참여했던 진수는 출옥 후 고문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끝에 자살한다. 기억의 저주로부터 숨을 곳이 없는 피해자에게 자살은 유일한 탈출구이자 선택지이다. 언뜻 환경단체에서 이십년 째 일하고 있는 선주는 비교적 잘 살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그녀 역시 육체적·성적 고문의 충격으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어느 누구와도 따뜻한 관계를 맺지 못한 채 고립되어 있다.

사건의 외부에 있는 이들이 사건의 폭력을 체험해야 공감이 일어나지만, 인간과 세계에 대한 불신을 촉구하는 사건의 폭력성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트라우마적 사건이 시간이 지나도 뭉개지거나 흐릿해지지 않는 까닭은, 인간 생존의 가장 근원적인 추진력인 나르씨시즘을 훼손하고 세계에 대한 신뢰감을 박탈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은숙, 진수, 선주가 겪은 폭력은 각각의 개별성에도 불구하고 동질적이다. 폭력은 육체 위에 고통을 퍼부음으로써 인간을 고깃덩어리로 전락시키고 자신이 존엄하고 품위있는 존재라는 확신을 추방해버리기 때문이다. 지옥같은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은 이가 자신의 생활을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것은 자신보다 순결한 사람들이 죽었다는 죄의식 때문인데, 그러한 감정의 밑바닥에는 자신이 인간 이하의 존재로 떨어져버린 수치의 기억이 깔려있다.

이렇게 볼 때 빨갱이로 내몰린 선주가 삼십센티 나무 자가 자궁을 후벼파는 고문을 겪고도 자살하지 않는 것은 미스테리해 보인다. 그러나 기실 그녀가 도청에 남은 시민군을 중언해달라는 윤의 제안을 거절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애도 거부는 더 깊은 병증을 암시한다. 그녀는 인간은 고귀하다는 테제를 불신하게 만든 계급적 경험에 일찌감치 노출되었다. 서울의 방직공장에 다니던 십대 노동자 선주는 민주 노조를 지키기 위해 옷을 벗지만 모랫바닥에 내팽개쳐진 신체의 기억을 안고 있다. 그녀가 노동운동가인 성희언니와 불화하는 것은 “노동자는 고귀해”라는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¹²⁾ 이렇듯 이들의 중언

12) 임선주의 이야기는 유신 말기 동일방직의 똥물사건을 연상시킨다. 동일방직의 여성 노동

혹은 증언으로서의 삶은 “냄새를 풍기는 더러운 봄, 상처가 문드러지는 봄, 짊주린 짐승 같은 몸뚱어리들이 너희들이라는 걸, 우리가 증명해주겠어.”라는¹³⁾ 진수를 고문했던 형사의 말처럼, 폭력이 인간의 명예를 실추시킴으로써 생존자를 쉴 새 없이 절망하게 만드는 메카니즘임을 암시한다. 그러나 작가는 인간의 취약성을 한껏 슬퍼하는 한편으로 그것을 통해 역설적으로 인간은 고귀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형, 영혼이란 건 아무것도 아닌 건가.

아니, 그건 무슨 유리 같은 건가.

유리는 투명하고 깨지기 쉽지. 그게 유리의 본성이지. 그러니까 유리로 만든 물건은 조심해서 다뤄야 하는 거지. 금이 가거나 부서지면 못쓰게 되니까, 버려야 하니까.

예전에 우린 깨지지 않은 유리를 갖고 있었지. 그게 유린지 뭔지 확인도 안해본, 단단하고 투명한 진짜였지. 그러니까 우린, 부서지면서 우리가 영혼을 갖고 있었단 걸 보여준 거지. 진짜 유리로 만들어진 인간이었던 걸 증명한 거야.¹⁴⁾

진수는 죽음의 공포와 무차별적인 폭력을 겪고도 살아 돌아오지만 모멸의 기억을 지울 수 없어 정신병원을 드나들다가 결국 자살한다. 그가 죽기 전 유언처럼 남긴 위의 말은 진수와 함께 고문을 받던 시민군의 “우리는 존엄하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을 뿐, 언제든 아무것도 아닌 것, 별래, 짐승, 고름과 진물의 덩어리로 변할 수 있는 겁니까? 굴욕당하고 훼손되고 살해되는 것, 그것이 역사 속에서 증명된 인간의 본질입니까?”라는¹⁵⁾ 절망어린 항의를 위로하지 못하는 듯 보인다. 그는 항쟁을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숭고한 심장”, “느닷없이 발견한 내

자였던 석정남은 노동 수기 『공장의 불빛』(1984, 일월서각)에서 경찰의 공권력과 남성노동자에 의해 민주노조가 와해되어 해고되자 좌절한 여성 노동자 셋이 복직투쟁을 그만두고 광주로 갔다면 안타까워한다. 이 셋 중 세상에 대한 불신 탓에 유난히 낯빛이 어두웠던 선에는 작중인물인 선주의 원형처럼 여겨진다. 작가는 정대의 실종된 누이 정미가 서울의 방직공장 노동자였다가 광주로 돌아와 전남방직의 노동자로 시위를 하는 장면을 통해 그녀의 죽음을 암시한다. 광주와 동일방직 사건은 인간에게 수치를 안겨주는 폭력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3) 한강, 2014 『소년이 온다』, 창비, 119면.

14) 위의 책, 130면.

15) 위의 책, 134면.

안이 깨끗한 무엇”,¹⁶⁾ “양심이라는 눈부시게 깨끗한 보석”에¹⁷⁾ 비유함으로써 익사의 위기로부터 자기를 구조해내려 한다. 그러나 자신도 진수처럼 언젠가 자살할지도 모른다는 고백처럼 아름다움은 죽음의 유혹으로부터 생명을 지켜주지 못할지도 모른다. 희생적 죽음이 내포한 고귀한 뜻과 무관하게 폭력은 “우린 도록 된 고깃덩어리들이 아니어야 하니까.”라는¹⁸⁾ 다짐을 무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한강은 도청에 남은 시민군들의 주검을 심리적으로 부검하면서 그들의 죽음을 단지 덧없는 것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듯 보인다. 동호가 도청으로 다시 되돌아간 것은 정대의 손을 놓아버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즉, 죽음은 타자의 고통에 대한 응답 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고귀한 인간’이라는 테제는 사건의 외부에 있는 이들이 삶에 대한 불신과 인간에 대한 환멸을 유도하는 유령을 추방해내기 위한 의도의 소산이 아니다.¹⁹⁾ 그러나 작가는 어느 책의 인용문을 빌어 “군중의 도덕성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라고²⁰⁾ 함으로써 희생을 미화하기보다 인간의 취약함을 슬퍼함으로써 상처와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일깨우려 한다. 그것만이 타자에 대한 나의 책임을 일깨움으로써 ‘보살핌의 정의’가 실현되는 공동체로 우리를 이끌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고귀하다는 발견은 기실 인간의 취약함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소설의 말미에서 그간 애도를 거부했던 선주는 소년에 대한 증언을 결심하는 한편으로 죽어가는 성희언니를 만나러 나선다. “우리들을 희생자라고 부르도록 놔둬선 안돼.”라는²¹⁾ 성희언니의 말처럼 수치심에 시달리는 희생자에게 모종의

16) 위의 책, 114면.

17) 위의 책, 116면.

18) 위의 책, 173면.

19) 홀로코스트 생환자인 베텔하임은 인간의 숭고함과 존엄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절멸수용소라는 사건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남은 것 자체가 폭력이 아닐 수 없는 사건이 사건의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인간의 숭고한 사랑의 찬가로 소비된다는 것 자체가 그로테스크한 일이라고 비판하며, 그것이 기실 희생자를 추방하는 방식임을 암시한다[오카 마리(김병구 역), 2004 앞의 책, 78면].

20) 위의 책, 95면.

21) 위의 책, 175면.

과제가 떠맡겨져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성희 언니의 임박한 죽음은 ‘인간은 고귀하다’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우리 시대의 위기를 알리는 신호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작가는 광주를 인간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모든 폭력들의 대명사로 호명한다. 2009년의 잿더미로 변해버린 용산만이 아니라 1979년의 동일방직의 어린 여공들의 몸으로 똥물이 퍼부어지던 여름날도 모두 ‘광주’라는 발견은 광주가 기억의 정치가 아니라 애도의 자원으로 재의미화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3. 모욕의 인간학과 ‘고귀한’ 죄책감: 권여선, 『레가토』

『레가토』는 한국인의 정치사에서 가장 무거운 사건으로서 ‘광주’가 개인의 인생에 던진 충격을 암시하듯 ‘광주’와 ‘청춘’을 연동시켜 이야기한다. 그런데 실상 사건의 충격적 무게를 염두에 두자면 광주민주화항쟁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작가는 인터뷰를 통해 “80년 광주를 다루고 싶다는 욕망에서 출발했지만, 한국전쟁이나 4·19혁명을 다루듯이, 보편적으로 격변의 시기에 인간이 겪는 고뇌, 갈등, 절망과 그리움을 다루려고 했다.”고 창작의 동기를 밝힌다.²²⁾ 광주라는 소재의 무거움을 염두에 둘 때 이러한 재현 방식은 다소 당혹스럽다. 그러나 어쩌면 이렇듯 대담한 발상은 현대사에서 죄책의 최종심급으로 신성화됨으로써 역설적으로 기억의 영역에서 추방된 광주의 의미를 개개인의 구체적인 삶과 연동시켜 담아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즉 광주는 마치 병풍인 양 소설의 배경에 펼쳐져 있으면서 항쟁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건들을 되비추며 의미를 형성해간다.

이 작품은 유신말기 학생운동 세대의 삼십년 후를 그리고 있다. 이념 써클인 전통연구회의 인하, 준태, 준환, 재현 등은 정치적 격정의 시간을 치열하게 살아

22) 권여선은 80년대 학번이면서 군이 79학번 이야기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루고 싶은 마음에서였다”라고 답한다(박서강 기자, 「제45회 한국일보문학상 수상자 권여선: “안간힘 쓰고 나니 마음에 힘이 고일 자리 생긴 듯”」, 『한국일보』 2012.11.13).

온 대가인 양 국회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출판사 사장, 교수 등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은 능글맞고 영악하게 잇속을 채우며 늙어가는 중년이지만 우울의 징후를 감추지 못한다. 이러한 서사구도는 1990년대에 ‘386’으로 불리던 혁명세대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순결했던 과거와 타락한 현재의 도식을 통해 세대적 인정투쟁의 욕망을 드러낸 ‘후일담’ 소설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이 소설은 과거에 대한 나르시시즘적 향유를 저지하는 여성의 비명과 눈물을 들려준다는 점에서 후일담의 공식을 배반한다. 삼십년 전 어느 날 학교를 떠난 뒤 5월의 광주에서 사라진 오정연의 딸 하연이 이들을 찾아옴으로써 청춘의 과오 역시 소환되기 때문이다. 유장한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소멸하지 못한 기억과 숨은 죄가 회귀해 옴으로써 가해자의 애도가 시작되는 것이다.

전통연구회 멤버들에게 오정연은 이름만으로도 간절하게 그리운 연인이자 죄책감을 자아내는 고문관이다. 그녀는 대학의 첫 학기를 마치지 못한 채 우리들 곁을 떠나고, 이듬해 5월의 광주에서 총상을 입은 몸으로 실종된다. 합숙기간 중 선배 박인하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전남의 고향으로 내려가 딸을 낳고, 서울의 친구들에게 돌아오던 중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우리들은 그녀를 그리워하는 한편으로, 그녀가 석연치 않은 일로 떠났음을 짐작하지만 그 원인을 추적하지 않음으로써 죄책감에 사로잡힌다. 박인하는 운동권의 전설적인 투사이자 우리들 조직의 리더이기 때문이다. 희생자가 어디있는지 알 수 없기에 그 몸을 편안히 누일 수 없다는 점에서 ‘실종’은 멜랑콜리를 유발한다. 그러나 이들이 보이는 폭음, 자기 학대, 히스테리, 수시로 터져나오는 눈물에 대한 죄책감에서 기인한 자기징벌의 욕망을 암시한다. 그것은 광주에 대한 ‘우리’의 원죄의식과 결합함으로써 더욱 증폭된다.

여기서 오정연은 단순히 학생운동세대의 가부장성을 까발리는 희생 제물이 아니라 광주세대가 직면해야 할 타자, 어쩌면 자기 자신의 얼굴이다. 신입생인 정연은 전통연구회에서 청춘의 첫 발을 디디지만 공동체로부터 받아들여지지 못하는데, 이는 몇 개의 폭력 사건으로 나타난다. 어느 날 정연은 형사의 눈을 피해 ‘불온’ 문건을 배포하며 느낀 공포를 고백하고 선배로부터 뺨을 맞는다. 그녀가 전사에게 금지된 나약함, 즉 여성적 감정을 일깨웠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박인하는 정연을 성폭행함으로써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안겨준다. 아픈

자신을 돌보는 그녀의 손길에서 단단히 억누르고 있던 인간적인 감정들이 깨어 났기 때문이다. 전설의 운동권이지만 첩의 자식이라는 출생의 트라우마와 모성 결핍에 시달리는 빈곤한 마음이 그녀의 모성적 보살핌에 의해 무방비하게 회귀해온 탓이다. 그는 자신이 나약해지는 것, 즉 여성화되는 것이 두려워, 정연에게 매맞고 웃이 찢겨지고 살이 뜯어지는 조잡한 고통으로 전달불가능한 모멸감을 안겨준다. 그러므로 정연은 흡뚜렷 눈으로 밤을 새우게 하는 유령, 용서를 빌고 구원 받기 위해 찾아야 하는 괴에 젖은 천사가 된다.

작가는 일견 이질적으로 보이는 폭력들을 연결지어 상처와 고통에 대한 섬세하고 예리한 발견의 틈을 열어둠으로써 오정연을 애도하려고 한다. “소멸하는 앞의 음과 개시되는 뒤의 음이 겹치는 순간의 화음”을²³⁾ 연주하는 음악적 기법인 ‘레가토’를 제목으로 차용해 단지 과거와 현재만이 아니라 사건과 사건 간의 대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질적인 시간 혹은 사건들을 부드럽게 연결하고 겹치게 하는 접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도 ‘모욕의 인간학’과 ‘귀중한 죄책감’일 것이다. 작가는 마치 가해와 피해, 죄책과 모욕의 연산법칙을 구하는 수학자인 양 누군가에게 안겨준 수치심이 자기 증오로 되돌아오는 순환구조를 정밀하게 보여준다. 예기치않은 사건으로 인간의 삶과 관계를 돌아킬 수 없이 훼손해버리는 폭력들을 통해 모욕의 인간학을 펼쳐 보인다. 근대의 인권선언이나, 사랑과 환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마저 폭력을 저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모욕은 시간의 유일한 승리자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폭력은 피해자를 가해자의 삶 속으로 끌고 들어와 양자를 합체시킴으로써 가해자를 징벌의 시간 속에 가둔다.

아무려나, 누군가를 지독히 모욕하면 격렬히 증오하게 된다는 대목에 책 주인이 왜 밑줄을 그어놓았는지 인하는 삼십년이 지난 지금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중략) 모욕의 관계에서 증오를 품는 쪽은 모욕을 당하는 쪽이 아니라 모욕을 가하는 쪽이다. 모욕을 감내하는 자의 얼굴은 모욕을 가한 자에게 견딜 수 없이 냉혹한 거울이니. 누군가를 지독히 모욕한 자기 악의 심연을 들여다보는 일이니.²⁴⁾

23) 권여선, 2012 『레가토』, 창비, 429면 작가의 말.

24) 위의 책, 30면.

재선 국회의원인 박인하는 절생긴 얼굴과 높은 사회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우울의 병리적 징후를 감추지 못한다. “과오를 저지르지 않은 자는 기억의 저주에 대해 알 리가 없다.”는²⁵⁾ 독백은 가해자가 반드시 상처없는 승리자가 아님을 암시한다. 강간당한 정연이 비명인 양 훌조리던 퀸의 음악은 마치 플래시백인 양 시도 때도 없이 그를 사건의 기억 속으로 끌고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는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자신이 더러운 강간범이라고 만인 앞에 고발당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심리적 만족을 얻는다. 가해자의 자기정벌을 향한 소망은 사랑을 잃고서 쓴 연서인 양 애절해 아름답기조차 하다. 그러나 이는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기보다 가해자를 심문함으로써 우정의 책임을 일깨우는 것이다. 만약 자기처벌을 갈망하는 가해자가 기이한 감동을 안겨 준다면, 이는 죄책감이 인간을 윤리적으로 만들어주는 정서적 자원이기 때문이다. 소설은 실종된 정연이 발견됨으로써 박인하에게 처벌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린다.

정신분석의인 노다 마사히토는 이차세계 대전 후 일본이 전쟁 가해자로서 죄의식을 억압해왔다고 하며, 희생자를 애도하지 못해 참전병사들이 겪는 고통을 “귀중한 죄의식”이라고²⁶⁾ 명명한다. 그가 죄의식에 ‘귀중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그것만이 전쟁의 희생자를 애도하게 함으로써 폭력의 방지를 약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죄의식과 그로 인한 수치심은 결코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불들어두어야 할 귀중한 자원, 즉 타자의 상처입을 가능성을 고려하는 도덕감정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왼쪽 얼굴의 화상 자국으로 순구라는 이름 대신에 ‘딘둥이’로 불리는 남자에게 주목해야 한다. 어린 시절 이웃 할머니의 실수로 화상을 입게 된 그는 인하가 가르치는 야학의 학생으로, 광주에서 정연을 칼로 내리친 공수부대원으로, 전철에서 성경을 읽는 암내 지독한 여자의 남편으로 잠깐씩 얼굴을 비춘다. 흉터 난 얼굴과 눈의 멀림으로 두려움과 혐오를 유발하는 순구는 한 인간의 삶에 대한 상상력을 촉발하면서 가해와 피해가 연동하는 폭력의 법칙을 암시한다. 하연이 여자의 암내에 코를 막는 깔끔한 슈

25) 위의 책, 54면.

26) 노다 마사아키(서혜영 역), 2000 『전쟁과 인간』, 길, 50면.

트 차림의 남자에게서 “강한 윤리적 명령”을²⁷⁾ 읽어내는 것은 타자의 상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사랑도 정의도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애도가 이상적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로 수렴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 작품에는 전통연구회, 근대 국민 국가, 성암사라는 세 개의 공동체가 등장한다. 이 중 폭력을 통해 복종을 유도하는 ‘내이션’과 여성이라는 다른 몸과 성에 대한 보살핌의 능력을 결여하고 있는 이념적 커뮤니티는 공동체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전남의 성암사만이 대안적 공동체의 미래로 다가온다. 오래 전 빨치산이었던 정연의 아버지가 산에서 내려와 세운 그곳은 공동체에 적합한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고, 하나를 배타적으로 억압하는 국민국가의 법을 넘어선 초월적 장소이다. 또한 아버지의 사망 후 정연의 어머니 유보살이 꾸려가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성암사는 세상에서 상처입고 돌아온 딸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는 모성적 공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손녀(하연)를 성폭행한 남자를 살해하고 그 시체를 감쪽같이 묻어버리는 공포의 권력이 통치하는 땅이다. 본래 망자의 넋을 달래고 산 자와 죽은 자를 화해시키는 애도 공간인 성암사는 ‘나’와 ‘너’, 즉 ‘주체’와 ‘타자’가 미분화된 전오디푸스적 ‘코라’인 것이다.

행방불명된 오정연이 모습을 드러내는 파리는 국경을 초월한 공동체의 미래이기도 하다. 정연의 이야기는 파리의 한식당에서 5월의 광주를 방문한 에르베 교수에게 극적으로 구조되어 아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정연이 한국인 유학생들과 만찬을 함께 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이 장면은 정연의 아픔이 사람들에게 공유됨으로써 애도가 촉발되는 희귀한 경우에 속한다. 마치 참혹했던 폭력을 증언하듯 정연의 몸은 치명적인 장애를 안고 있으며 그녀는 끔찍한 기억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해내려는 듯 모국어와 국적 그리고 자기의 이름마저 송두리째 잊었다. 정연이 유학생들 앞에서 훼손된 자신의 몸을 ‘전시’하고, 에르베 교수가 그녀가 광주에서 겪은 폭력을 이야기하는 대목은 다소 유치해보인다. 타인이 슬픔을 공감해주기를 바라고, 또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가는 이 장면을 통해 오랜 타국생활로 향수병을 겪는 유학생

27) 위의 책, 299면.

들과 사촌 누이의 죽음을 막지 못한 죄책감으로 정연을 보살피는 에르베 교수, 그리고 자신의 딸 하연은 미처 지우지 못한 오정연의 슬픔이 공명하게 함으로써 애도의 가능성은 의도적이리만치 낙관한다. 이는 슬픔이 애도 간 대화를 유도해 사람들 사이를 연결함으로써 사회적 애도의 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소망어린 믿음을 암시한다.

4. 슬픔의 금지를 넘어

한국의 현대사는 한국전쟁으로부터 시작해 최근 세월호 사건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은 재난과 그로 인한 희생적 죽음을 양산해 온 외상의 연대기이다. 그러나 정작 재난 피해자는 슬퍼할 권리를 박탈당하는 한편으로 희생적 죽음을 위로하기 위한 애도의 문화 역시 형성되지 못했다. 이는 슬픔의 금지 혹은 부인이 이루어져왔음을 암시한다. 전후의 한국 사회는 곳곳에 전란의 흔적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전쟁 희생자를 추방하려는 듯 ‘명랑하라’고 명령한다. 잡지들은 ‘명랑’, ‘희망’, ‘아리랑’ 등의 제호를 걸고 활짝 웃는 미인의 사진을 독자에게 내민다.²⁸⁾ 박정희에서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개발 독재기에 이르면 슬픔은 경계와 감시가 아니라 징벌해야 할 대상이 된다. 슬픔이 퇴폐 정서와 동일시됨으로써 ‘불온’의 목록에 오르기 때문이다. 이천년대 역시 슬픔은 여전히 금기시 된다. 생존

28) 그간 우리 사회에서 애도의 권한은 국가가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국가주의로서의 애도는 희생자에 대한 사회적 애도를 불가능하게 만드는데,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제 1회 현충일 추념식이다. 1956년 현충일 추념식은 국가 주도의 애도가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 사회의 권력 주체가 “자신의 정체성을 공고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기원, 생존과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특정인물이나 집단 또는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지속적으로 ‘기념’해야 할 필요성”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암시한다. 대통령 이승만은 유가족이 소리내어 통곡하자 “우리가 잠시 인정적 감상만을 위해서 울며 부르짖는 것이 전망자(戰亡子)에게나 산 사람들에게 조금도 도움이 업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슬픔의 표현을 금지시키고, 전몰자의 죽음을 반공을 위한 의지적이고도 자발적인 희생인 양 미화한다.

이 정언명령이 된 시장사회에서 우수한 노동력은 무엇이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모욕에도 미소를 잃지 않는 ‘경조증’의 인간이다.

노다 마사아키는 일본의 현대사를 감정마비 환자들이 득시글한 “항진과 충동의 시대”로 표현한다. 폐전 후 일본은 과거사를 반성하기는커녕 근대화를 서두르고 부국강병을 향해 공격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초조의 사회였다. 이에 따라 사람들의 기분은 변화하기 쉽고 권위적이며, 공격할 대상을 찾아 늘 자극적이기 쉬웠다. 이러한 시대 분위기는 감정의 빈곤함을 유도하기 때문에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하거나 타인에게 감정이입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았다.²⁹⁾ 그러나 한국인의 삶 역시 일본인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듯 보인다. 압축 근대화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경제성장을 위한 공격적인 행위자로 호명받음에 따라 폭력에 대한 두려움,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는 소수가 희생되어도 된다는 식의 윤리 감각의 황폐화를 겪어왔기 때문이다. 베트남 참전, 광주항쟁 등 발전주의 기획의 어두운 심연을 드러내는 사건들은 침묵에 부쳐지고 유령으로 회귀해오는 희생자는 추방되어온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5월의 광주는 단지 군부정권에 의한 저질러진 폭력이라기보다 마비된 윤리 감각을 일깨우는 사건으로 재의미화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최근 한국문학에서 광주의 유령이 다시 소환되는 다소 낯선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광주는 더 이상 ‘반미민족주의’나 ‘탈국민의 선언’같은 저항적 주체 구성의 계기로 서사화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폭력의 대명사로서 소환되지만 우리의 황폐화된 윤리감각을 인스톨하는 이름으로 재서사화한다. 『소년이 온다』의 광주 희생자들은 의인이나 열사가 아니라 모멸이 퍼부어지면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되고 마는 취약한 인간이다. 광주세대의 회한어린 폭로적 자술서이기도 한 『레가토』는 정치적 얇이나 신념의 순결성 이전에 부지불식간에 저질러지는 폭력에 대한 예리한 느낌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적나라한 폭력들은 인간성에 대한 환멸과 냉소로 독자를 끌고가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이를 작품은 수치, 죄책감 등 그간 이성의 그늘 아래 펼쳐되어온 감정이 인간을 윤리적으로 소

29) 노다 마사아키(서혜영 역), 2000 앞의 책, 15-16면.

환하고 공동체의 정의를 다시 세우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특히, 애도는 우리가 타자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있다는 사실을 일깨움으로써 슬픔을 각자를 고독의 벽 안으로 밀어넣는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감각을 섬세하게 만드는 정치적 자원으로 서사화된다.

주제어 : 애도, 죄책감, 기억의 정치, 슬픔, 광주 민주화 항쟁, 희생자, 후일담

투고일(2015. 2. 3), 심사시작일(2015. 2. 4), 심사완료일(2015. 3. 2)

〈Abstract〉

The return of a ghost and an epic of heartbreak

Kim Eunha *

Condolences are a rite of emotion for helping us to overcome sorrow because survivors can put the memory of the dead into site of memory and come back to daily life. Condolences can last, not just one-off event, because ‘the impossibility of condolences’ failed like paradoxical thesis of Jacques Derrida that can assure faithfulness of condolences. It seems that ‘the faithfulness of condolences’ is well identified by the fall victim to a certain suppressed power and the condolences, which is not natural death. It is because sacrificial death is sized with ‘a grudge’ that can’t be forgotten easily even though time goes by. It makes ‘condolences’ be an issue that is down to a social group, which a community shall bear, not to personal feeling wounded by the loss. It is because it brings up the necessity to heal sorrow as a group, not personal dimension, as giving trauma to whole communities.

Empathy for sorrow and the solidarity that people can feel might be a key point of political experiment for forming ‘us’, beyond an isolated individual. Condolences come from a human being that can respond as an existence and have responsibility to respond. Here, responsibility refers to an entrance into the relation with others, leaving one’s own isolated world. Therefore, condolences make us go our own life into a prospect of our life, not making the victims be an exorcist as making them be a monument. It can be an ethical theme, as asking us to change lifestyle. It is because if a heart that empathizes deeply the pain of others and considers doesn’t rise up, condolences may be just a chance of a political battle. According to Kobayashi Hideo, history is ‘the greatest grudge of mankind’, so what has been supporting it is not ‘casual links’ but ‘our regret’.

Seeing the example of it, there are two novels. When 『a boy comes』 by Han-gang

* Professor, Humanitas College, KyungHee University.

tried to reveal the iniquity of state violence based on a detailed historical research of Kwangju, it tried to do an aesthetic test which the people from the outside can share the event of contempt that the victims had. Explorations in human scar which the victims had can't be collected with language such as idea, politics and the main body of history, as inducing somber empathy for human vulnerability. Moreover, 『Legato』, which is a disclosed statement of the generation in Kwangju, has evoked the importance of a sharp sense for violence that is done unconsciously, prior to political knowledge or purity of faith. It seems that the naked violence lead the readers to disillusioned and a cynic for human nature. These works, however, imply that emotion which has been degrading under reason such as humiliation and sense of guilty until now could be a clue that calls ethically mankind and rebuilds justice of community. Especially, condolences make sorrows be a meaning as a political resource for a fine emotion of community, as awakening that we are inextricably linked with others.

Key Words : Condolences, sense of guilt, memory storage, sorrow, Kwangju democracy Movement, victims, behind story